

성게, 굴 따위에다가, 온갖 종류의 조개까지도 다 잡았다네. 세상없이 살풍경한 곳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조용한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일도 종종 있었지. 때때로 우리는 바위 위 은모수(銀毛樹) 그늘 아래 앉아, 난바다에서 밀려드는 파도가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우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곤 했네. 그렇잖아도 물고기처럼 해엄을 잘 치던 폴은 넷 빈씩 암초가 있는 곳까지 너울 이는 바다를 맞이하며 나아갔다가, 파도가 다가오면 거품을 가득 머금고 포효하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뒤로한 채 해변까지 내달랐고, 파도는 모래사장 인쪽 깊숙이까지 폴을 쫓아오곤 했지. 그렇지만 비르지니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, 자기는 그런 장난이 너무 겁난다고 말했어.

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 두 어린 친구들의 노래와 춤이 이어졌네. 비르지니는 전원생활의 행복과 뱃사람들의 불행을 노래했는데, 뱃사람들이란 평온함 속에서도 그토록 많은 재화를 내어주는 땅을 경작하기보다는, 탐욕에 못 이겨 격렬한 삶의 터전을 향해하는 사람들이었지. 가끔 비르지니는 폴과 함께, 흑인들이 하는 것처럼 팬터마임을 공연하기도 했어. 팬터마임은 인류 최초의 언어로,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된다네. 흑인 아이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고 백인 아이들이 곧바로 배울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력 또한 매우 풍부하지. 비르지니는 어머니가 읽어주던 책에서 자기를 가장 감동시켰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, 그 안에 나